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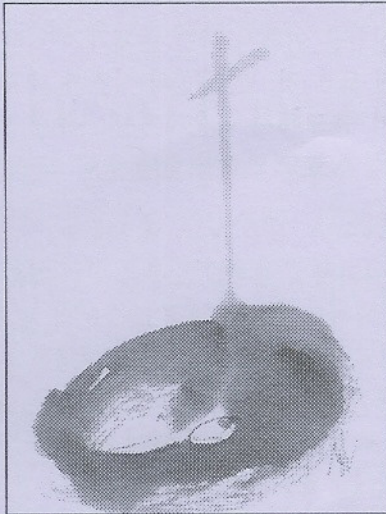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사순 제5주일
제29권 18호(나해) 2009 · 3 · 29

[묵상]



“나는 땅에서
들어 올려지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 이끌어
들일 것이다.”
(요한 12,32)

“보라, 나의 종은 성공을 거두리라.
그는 높이 올라 숭고해지고 더없이 존귀해지리라.
그의 모습이 사람 같지 않게 망가지고
그의 자세가 인간 같지 않게 망가져
많은 이들이 그를 보고 질겁하였다.
그러나 이제 그는 수많은 민족들을 놀라게 하고
임금들도 그 앞에서 입을 다물리니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은 것을
그들이 보고, 들어 보지 못한 것을 깨닫기 때문이다.”
(이사 52,13-15)

주님의 가르침은 역설(逆說)이다.
망가지고 또 망가져 형태조차 알지 못하고
낮추고 또 낮춰 이마가 땅에 닿고서
비우고 또 비워 아무 것도 남지 않으면
더 빛나고, 더 높이 오른다고 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자는 목숨을 잃게 되고,
미워하는 자는 오히려 목숨을 간직하여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大)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아침 미사 (레지오) 저녁 미사	오전 오후	9:00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청년미사)	오전 오후	8:30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오전 오전	7:30 9:30 11:00

주간 행사들

화요일	신앙학교 제4단계(종강)	오후	7:30
수요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레지오 마리아 예비자 교리반	오후 오전 오후 오후	2:00 10:00 8:00 8:00
목요일	병자영성체 (1째주) 성 시간 (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성령 기도회 예비자 교리반	오전 저녁 미사후 오전 오후 오후	9:30 미사후 10:00 8:00 8:00
금요일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M. E. Sharing(3째주) 울뜨레아 (4째주)	오전 오후 오후	9:30 7:00 8:00
토요일	유아세례 (4번째 토요일) 배론 청년모임 폐제기도모임(2째주)	오후 오후 오후	6:00 5:00 8:30
주일	병자 영성체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요셉회/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 대건부부회/원서부부회 3째주 -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가정의 날	오전 중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후 오후 오후	9:00 1:00 9:00 1:00 1:00 1:00 1:00

※ 고해성사: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혼배성사: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병자영성체: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박상대 마르코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구마리아네 (310)326-4350 Ext.102
평협회장: 오세원 아타나시오 (310)327-8035
사무실: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연)
특전 미사	(생) 문영일 안토니오와 신혜숙 율리아, 구명순 테레사, 방영화 요셉이나, 방세훈 요한, 방우리 레지나, 방수형 치릴로, 정현영 엘리사벳, 박소영 프란체스카, 박세준 요셉
주 일	(연) 김수환 추기경, 이금순 마리아, 고준희 제임스, 이상현 베드로, 변세연 대건 안드레아, 이현호 요한, 이영자 마리아, 이인순, 김소천 마리아, 이만복 로사, 차정진 마리아, 김자화, 홍요셉, 홍베드로, 김진성, 김누수, 박창식 베드로, 김홍기와 심태순 테레사, 신영순 로사, 엄은섭 도로테오, 김동신 야고보
낮 미사	(생) 오진 베드로, 정승현 셀리와 트레이시 가정, 김수정 발바라, 정은경 그레이스, 최조앤 가브리엘라 한종현, 조옥중 사도요한 사제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예레미아서(Jeremiah) 31,31-34

화답송 ◎하느님, 내 마음을 깨끗이 만드소서.

〈전례서가 67, 사순 제5주일 나해〉

◎하느님, 자비하시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애련함이 크시오니 내 죄를 없이 하소서. 내 잘못을 말씀하소서. 내 허물을 깨끗이 없애 주소서.◎

○나는 내 죄를 알고 있사오며, 내 죄 항상 내 앞에 있삽나이다. 당신께 오로지 당신께 죄를 얻었삽고, 당신의 눈 앞에서 죄를 지었나이다.◎

◎하느님, 내 마음을 깨끗이 만드시고, 내 안에 굳센 정신을 새로 하소서. 당신의 편전에서 날 내치지 마옵시고, 당신의 거룩한 열을 거두지 마옵소서.◎

○당신 구원 그 기쁨을 내게 도로 주시고, 정성된 마음을 도로 굳혀 주소서. 주여, 내 입시울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당신의 찬미 전하오리라.◎

제 2독서 히브리서(Hebrews) 5,7-9

복음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환호송 찬미받으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으리라.◎

복음 요한(John) 12,20-33

영성체송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토요특전)	낮 미사
미사곡	51-58	33-42
입당	150	157
봉헌	269	264,197
성체	Above All	281,308
파견	157	103

26. 그리스도인의 경제생활

우리 주위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그 때 난 죽을 뻔 했었는데 다시 살아났다. 지금부터 사는 것은 덤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내 욕심만 부리고 살 것이 아니라 남에게 봉사하면서 살겠다.” 하고 다짐하는 경우가 많다. 사실은 우리 생명 자체가 하느님께서 거저 주신 은총의 선물이다. 따라서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웃을 위하여 자신이 가진 모든 것, 곧 자신의 시간과 재능과 노력과 재물 등을 나누어 주고 또한 이웃에게서 나누어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한다.

▶ 삶의 조건인 노동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노동은 인간 삶의 조건으로 주어졌다. 예수님께서도 노동을 하였고 그분의 제자들도 모두 노동자였다. 바오로 사도는 각지로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도 필요한 것은 손수 일해서 마련하였고(사도 20,34 참조), 그리스도교 신자 공동체에게 “묵묵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벌어들여 먹도록 하십시오.”(2테살 3,12) 하고 권고하였다.

우리는 노동을 통하여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인간 사회에 필요한 것들을 생산하고 제공함으로써 하느님의 창조 활동에 참여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노동의 신성함을 인식하고 성실하게 일하여 지상에서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모든 사람과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풍요로운 사회를 이루어 나갈 의무가 있다.

▶ 직업윤리

인간 사회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직업이 있다. 인간은 다양한 직업을 통하여 각자가 타고난 능력을 발휘하고 실현한다. 따라서 직업은 귀천을 따질 수 없으며, 부정하고 불의한 일이 아니라면 어떤 직업에 종사하더라도 인간 사회를 이루어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직업에 따라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거나 재산에 따라 계급의식을 갖는 것은 인간 생활의 한 가지 수단일 뿐인 재물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는 데에서 비롯된 잘못된 풍조다. 지상 생활이 전부인 것으로 착각하고, 재물을 모으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양 온갖 물욕에 집착할 때 인간 사회는 불안해지고 갖가지 부정과 부패와 범죄가 꼬리를 물고 일어나게 된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세상의 재물에 아예 무관심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간 사회의 물질만능주의를 경계하고 하느님을 섬기라는 말씀이다.(마태 6,24 참조) 재물을 많이 소유하는 것이 행복의 척도가 될 수 없고, 오히려 재물을 많이 가질수록 점점 더 탐욕과 갈증을 느끼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인간답게 사는 것’이 참된 행복의 길임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CBCK 제공 - 계속)

하느님의 영광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요한 12, 28).

오늘 복음의 한 대목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난을 받으시기 전에 하느님께 기도한 내용을 위와 같이 듣는다. 예수님의 이러한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잠시 생각에 잠기게 한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묻게 한다. 과연 우리는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왔고 또 그렇게 살고 있을까? 지금은 그렇게 못살고 있지만, 앞으로는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며 살 수 있을까?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며 사는 일이 정말로 가능할까?

아마도 우리 중의 대부분이 이러한 질문에 떳떳하게 대답하지는 못할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시작한 이후로 오늘날까지 우리는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일보다는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 쏟아왔다는 것이 더 솔직한 대답일지 모르겠다. 우리가 신앙 때문에 그리고 신앙을 위하여 산다고 주장해 왔어도 어떨 때는 실상 교묘하게 신앙을 핑계로 우리 자신의 삶을 위해서 살아왔을 수도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반성해보고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예상해 볼때 우리에게 스스로의 힘으로 하느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의욕도 능력도 턱없이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하느님의 영광보다는 오히려 인간의 영광이 더 중요하고, 또 인간들 다수 또는 모든 이들의 영광보다는 나 자신의 개인적인 영광이 중요함을 적지 않은 이들이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살고 있을 것이다. 나 아닌 다른 이들에게 영광을 빼앗기는 것은 나 자신에게는 치욕과 부끄러운 일로 남는다고 생각될

것이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우월한 존재가 되는 것이 더욱 좋은 것으로 생각되고 언제나 1등만을 추구하는 것만이 삶의 의미요 보람으로 생각될 것이다. 그래서 유일한 승자가 되어 모든 영광을 누리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잡는 것만이 의미 있는 것이 된다. 그러나 한쪽만이 모든 영광을 독점하는 것은 많은 문제의 산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잠시 잊는 것 같다. 1등만을 추구할 때, 금메달만을 추구할 때,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이들이 못난이가 되어야 하는 것이 이러한 사고방식의 이면이다.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은 하느님에게만 영광을 드리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느님께 봉사하고 영광을 드리려는 목적을 설정한다면, 즉 보잘 것 없고 나약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느님을 우리가 수용하고 그분께 우리 자신을 봉헌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곧 인간에 대한 구체적인 봉사로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느님께 봉사하고 영광을 드리려고 할 때 이웃 인간들이 구체적으로 그 봉사의 대상으로 드러나기에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영광을 드리려고 한다. 인간만의 영광을 추구할 경우에는 그것은 한없이 추악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역사 그리고 그 밖에 다른 것들을 통해서 알고 있다.

예수님은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자기 자신을 인간들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의 제물로 내놓으셨다. 최근 선종하신 추기경님께서 자신을 바보라고 부르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게 한다.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신 당신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리라.

◆이규성 토마스 신부<예수회/서강대신학대학원 교수>

이번 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박소영 프란체스카	신덕례 데레사	정미영 미카엘라
제1독서자	박지혜 수산나	김교복 레오	이재용 안드레아
제2독서자	민슬기 로사리아	황지영 안젤라	이혜선 안젤라
제물봉헌자			토런스 서 3반

다음 주 전례 봉사자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태훈 아오스딩	신덕례 데레사	최진수 에우세비오
제1독서자	박지혜 수산나	박진수 스테파노	이영석 크리스토폴
제2독서자	민슬기 로사리아	박혜경 레나타	권순길 체칠리아
제물봉헌자			토런스 남 2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十 사순시기 十

어느덧 사순 막바지인 제5주일을 맞았습니다.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님! 오늘도 저는 많은 것에 잠들어 있습니다. 화해하고 용서해야 할 가족과 이웃들을 감싸 안지 못하는 사랑에 잠들어 있고, 나누고 보살펴야 할 가난한 이웃과 고통 받는 이웃들을 바라보지 못함에 잠들어 있고, 위선과 고집, 편견과 자만에 너무도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 저희를 영원히 살리시는 주님, ... 저를 당신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소서.

-사순절 일상피정 중에서-

- ◆ 전 신자 십자가의 길 : 매주 금요일 오후 7시30분
 - 사순 제5주일 금요일(4월3일) : P.V. 구역
- ◆ 백삼위 본당 사순 관공성사 : 4월1일(수)
 - 오후 7시30분 : 참회예절(주일학교는 강당에서)
 - 오후 8시부터 : 고해성사
 - 어르신을 위한 관공성사 : 오늘 주일(29일)과 4월5일 주일 미사 전후에 미리 드립니다.
- ◆ 남가주 합동관공성사로 평일 저녁미사 시간 일시 변경
 - 4월1일(수) : 오전 9시 ● 4월2일(목) : 오전 9시
- ◆ 사순절 희생 애공봉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 우리 가족의 희생, 극기, 보속, 선행으로 모아진 성금을 하느님 대전에 정성껏 봉헌합니다. 사순절 희생봉투는 주님 만찬 성목요일(4월9일) 미사 중에 봉헌합니다.

- ◆ LA 대교구 사목지침에 따른 성체성혈 분배자 정기교육
 - 일시 : 오늘 주일(29일) 오후 1시, 본당 성전
 - 교육대상 : 전례부원, 성체성혈 분배봉사자(환자방문 봉성체 포함), 독서자, 복사, 추천받은 신자들.
 - 교육이수자 : LA대교구 발행 Certificate을 받게됩니다.

- ◆ 성삼일 전례 관계자 회의
 - 일시 : 오늘 주일(29일) 오후 3시30분 강당
 - 대상 : 전례분과위, 지휘자, 해설자, 독서자, 전례봉사단
- ◆ 4월 병자 봉성체와 성모신심 미사
 - 성모신심 미사 : 4일(토) 오전 8시30분
 - 병자 봉성체 : 9일(목) 오전 9시30분부터(아침미사 없음)
- ◆ 부활맞이 전신자 본당 대청소 실시

부활대축일을 앞두고 성전 안팎과 교실, 화장실, 친교장, 정원, 축구장 등 본당 시설물 구석구석을 대청소합니다. 토요일전 미사와 아침미사 참여자들도 많은 협조 바랍니다.

 - 일시 : 4월5일(주일) 낮미사 마치고 점심식사 후
 - 청소 담당구역 : 소공동체 구역장/반장, 게시판 안내 참조
- ◆ 한국어 Virtus 트레이닝 교육
 - 일시 : 4월18일(토) 오전 10시30분~12시30분
 - 장소 :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
 - 대상 : 주일학교와 한국학교 학생 등 가톨릭 교회내 미성년자들에게 봉사하는 모든 성인들은 LA 대교구 방침에 따라 의무적으로 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 문의 : 최안젤라 자매(벨리성당) ☎(201)906-2433
- ◆ 백삼위 본당 건진성사
 - 교육일정 : 4월21일(화)~24일(금) 오후 7:30~9:30
 - 건진성사 : 4월26일(주일) 오전 11시 미사 중에
 - 주례 : Bishop Alexander Salazar (San Pedro Region)
 - 신청서 : 사무실에 비치. 서두르십시오.
 - 문의 : 종교교육분과 최재은 베드로 ☎694-4585
- ◆ 남가주 M.E. 제63차 첫주말
 - 일시 : 5월1일(금)~3일(주일)
 - 장소 : 마리아 & 요셉 피정센터(P.V.)
 - 신청 : 백삼위 대표부부 최사비노 & 안젤라 ☎350-4185

-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소공동체
 - 3월29일(주일) : 토런스 남 2/3반(콩나물 비빔밥 \$3)
 - 4월5일(주일) : 소공동체(김밥 \$4)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태홍	곽효식	구자운	금영도	김관기	김병철
	김병학	김성현	김우용	김일선	김종선	김풍길
	민경근	박동수	박선희	박영룡	박인식	박주현
	배태임	성지용	신대식	신순철	안태갑	엄지선
	오진	우영희	유정복	윤화경	이상철	이석호
	이윤무	이재용	이현주	정상문	정열모	정해홍
	조경림	조소영	조준제	차인수	채양석	최길주
	최원석	최현찬	최희태	한금순	한창주	한혁수
	합계 : \$5,910					
미사헌금 : \$2,964.95						

성전헌금	강태홍	곽효식	구자운	금영도	김관기	김병학
	김성현	김우용	김일선	김풍길	민경근	박동수
	박선희	박영룡	박인식	박주현	성지용	신대식
	신순철	안태갑	유정복	윤화경	이상철	이석호
	이일길	이재용	이현주	정열모	정해홍	조경림
	조준제	차인수	채양석	최길주	최원석	최현찬
	최희태	한금순	한창주	한혁수		
	합계 : \$3,520					
감사헌금 : 성낙호						

◆ 주일학교 / 한국학교 소식 ◆

◆ 부활절 방학

- 4월5일/12일 주일에 주일학교/한국학교 수업
- 오전 9시 30분 학생미사는 꼭 참석하세요.

◆ 부활절 계란 장식

- 일시 : 4월11일(토) 오전 11시, 강당 ● 대상 : K~6학년

◆ Egg Hunting/그림 전시회

- 일시 : 부활 대축일(12일) 오전 9시30분 학생미사 후 성당 잔디밭에서 달걀찾기 행사가, 친교장에선 어린이들이 직접 그린 '나의 예수님' 그림이 전시됩니다.
- 이날은 수업과 점심이 없으므로 행사후 바로 자녀들을 데려갈 수 있도록 학부모님께서도 함께 미사와 행사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끝나는 예정시간 : 오전 11시)

◆ 은총시장 행사

- 일시 : 4월19일(주일) 학생미사 후 각 반별로 있습니다.
- 초등부 학생들이 사순시기 중 기도문 암기, 주일미사 참여, 성경쓰기 등으로 얻은 포인트에 따라 선물을 받게 됩니다.

◆ 2009년 상반기 한국학교 교사 연수(중급과정)

- 일시 : 4월29일~5월22일까지
매주 수/금요일 오후 7시~ 9시
- 장소 : 백삼위 본당 강당
- 교과목 : 창의적 사고력 키우기, 읽기교육, 문법, 쓰기, 글짓기, 중급반 모델수업 등
- * 문의 : 이헬레나 본당 한국학교 교장 ☎(310)347-8765

남가주 소식

◆ 성유 축성 미사(Chrism Mass)

- 일시 : 4월6일(월)오후 7시
- 장소 : LA주교좌 성당(555 W. Temple St. LA)

◆ 제6차 신약 성경 통독 피정

- 일시 : 5월8일(금)오후 2시30분~10일(주일) 오후 5시30분(2박3일)
- 장소 : 테미쿨라 꽃동네 피정의 집
37885 Hwy. 79S. Temecula, CA 92592
- 대상 : 일반인
- 준비물 : 성경, 성가책, 세면도구, 침낭, 편안한 신발
- 피정비 \$110
- 신청문의 : ☎(951)302-3400

이번 주 단체 모임

--	--

다음 주 단체 모임

구역장/반장	오후 1시
--------	-------

소공동체부장 차장 차장		권순길 세실리아 (310)365-2183 박혜경 레나타 (310)808-5005 권병연 리디아 (310)938-3255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현자 안나 320-3697	1	남명자 데레사 328-0847	신현화 데레사 533-9538 4/24(금) 오후 7시30분
	2	신중철 아브라함 619-4343	김찬구 요한 701-6343 4/18(토) 오후 7시, 성당
	3	한길선레 스펀라스티카 218-7824	한길선레 스펀라스티카 782-1025 4/17(금) 오후 8시, 성당
	4	정종미 클라라 373-1237	정종미 클라라 373-1237
토런스 서 김숙희 오틸리아 782-8549	1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강인모 테오도시오 780-0369 4/19(주일) 오후 5시
	2	이크리스 아가토 619-7763	이철우 야고보 373-8340 4/8(수) 오후 7시, 양산박
	3	이호미 엘리사벳 543-4953	김미성 머리암 429-6204 4/16(목) 오전 10시30분, 성당
	4	이은록 요셉 371-4645	이은록 요셉 371-4645
토런스 남 김찌니 클라라 612-8840	1	엄영숙 마리아 373-5662	오창애 안나 326-1519 4/17(금) 오후 7시30분
	2	박희자 마리아 791-3703	김율리아나 325-6982 4/15(수) 오전 10시30분, 성당
	3	강은진 켈마 214-2290	강은진 켈마 214-2290
	4	이정훈 안셀모 908-8823	이정훈 안셀모 908-8823
토런스 북 이복임 엘리사벳 516-0818	1/2	박정희 마리아 800-3709	최미열 클라라 895-8624 4/17(금) 오후 7시
	3	대건회 : 거주지 역반으로 배속	대건회 반모임이었던 토런스 북3반 은 거주지역반으로 배속됩니다.
하버 카슨 박혜경 레나타 808-5005	1	정정숙 율리아 365-4722	정정숙 율리아 365-4722 4/17(금) 오후 7시
	2	박혜경 레나타 808-5005	박혜경 레나타 808-5005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장숙환 수산나 518-1736
P. V. 이정숙 스테파니 755-8360	1	최길숙 요세피나 997-9006	유근우 알렉시오 735-3721 4/17(금) 오후 7시
	2	김숙희 유소사 544-4807	안민수 베드로 544-8908 4/17(금) 오후 7시
	3	윤은경 미카엘라 265-0856	김도완 다니엘 892-1213 4/17(금) 오후 7시
	4	송기순 엘리사벳 265-0495	프란체스카 가보라 265-0495 4/10(금) 오전 10시, 성당

《사도 바오로의 해 특집: 바오로 서간과 신학사상》

◇ 바오로 서간 필사 순서: 데살로니카 1서, 데살로니카 2서, 코린토 1서, 코린토 2서, 갈라티아서, 필리피서, 필레몬서, 로마서, 에페소서, 콜로새서, 티모테오 1서, 티모테오 2서, 티토서

◎ 로마서 (2) - 사람은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통하여 의롭게 된다. ◎

◇ 주요 내용과 특징: 로마서는 앞뒤 인사말을 제외하면 전체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있다. 첫 부분은 교리에 관한 내용(1-11장)이며, 둘째 부분은 권고 또는 훈계에 관한 내용(12-15장)이다. 자신의 다른 서간들에서와 마찬가지로 바오로는 로마서를 인사로 시작한다. 그리고 자신이 로마를 방문하려고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음을 전하면서 방문하려 하는 목적을 설명한다. 로마 신자들에게도 자신이 선포해온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통해 서로 성령의 은사를 나누며 격려를 받기 위함이라고 한다.(1,1-16)

이어 바오로는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시한다. 우선 인간의 죄와 하느님의 진노, 그리고 하느님의 의로운 심판에 대해 얘기하면서 인간은 율법의 실천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됨을 강조한다.(1,18-3,31) 바오로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처럼 예수님을 죽인 이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하느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을 것이라고 역설한다.(4,1-25) 나아가 바오로는 아담의 불순종과 그리스도의 순종을 죄와 은총의 관계로 멋지게 대비시킨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어 생명을 받은 것처럼, 죄가 많은 곳에 은총도 풍성히 내렸다는 놀라운 역설을 제시한다.(5장) 6장부터 8장까지는 세례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리스도인은 죄와 율법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이들로서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들이다. 곧 그리스도인은 하느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이들이기에 어떤 환난이나 역경도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드러나는 하느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는 것이다. 바오로는 이어서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이방 민족들의 구원이 지니는 상관관계를 설명한다. 이스라엘의 잘못으로 다른 민족들이 구원을 받게 됐지만 결국에는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이다.(9-11장) 바오로는 이렇게 오묘한 하느님의 신비를 찬미하는 것으로 교리 부분을 마무리 짓는다.

바오로는 후반부에서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권고한다. 자신을 하느님 마음에 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쳐 하느님께서 베푸신 은총에 따라 합당하게 살아야 하고, 형제애로 서로 아끼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굴복시키라는 것이다. 권위에 복종하고, 형제를 심판하거나 형제에게 걸림돌이 되게 하지 말고 오히려 공동체의 일치를 위해 노력하라고 권고한다.(12,1-15,13) 이런 권고는 그리스도인들의 일반적 생활 규범이기도 하지만 바오로가 로마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 곧 유대계 그리스도인들과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의 갈등에 대해 믿음 안에서 서로 화합하고 하나가 되라고 당부하는 메시지이다. 바오로는 편지 끝 부분에서 이방인을 위한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 설명하면서 자신이 예루살렘과 로마 그리고 에스파냐를 방문할 계획임을 밝힌다. 그리고 인사와 찬양으로 편지를 마무리한다.(15,14-16,23)

이렇게 로마서는 사도 바오로의 심오하고 조직적인 가르침을 보여준다. 그렇지만 바오로의 신학사상이 전부 수록된 것은 아니다. 로마서에서 특히 부각되는 사상은 1) 하느님의 정의와 인간의 의화, 즉 하느님의 의(義)에 의해 모든 인간은 의화 되어야 하며, 인간의 의로움은 신앙으로 가능하다. 2) 이 신앙은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성취한 구원에 대한 것으로서 복음에 대한 응답이다. 3) 율법의 지배와 성령의 지배를 대조시키면서 율법 그 자체는 선하고 영적인 것이지만 인간을 생명으로 이끄는 능력은 없다. 율법의 세대는 인간이 죄와 죽음의 노예로 살았지만 ‘그리스도의 인간’은 율법의 지배에서 해방되어 성령과 더불어 산다는 것이다.

로마서에는 갈라티아서와 비슷한 내용이 많다. 율법과 믿음, 은총과 의로움, 죄와 구원, 성령 안의 삶과 같은 교리적 주제들은 물론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새 생활에 대한 권고 부분까지도 비슷하다. 다만 갈라티아는 상당히 격한 어조를, 로마서는 차분한 어조를 보인다. 그래서 로마서는 갈라티아서를 확대, 보완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평화신문 이창훈 기자]